대선 위기감 고조…통합 카드로 지지율 정체 돌파 시도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 추진
핵심 지지기반 호남민심 고려
반전의 계기 만들지는 미지수
선대위 쇄신론도 계속 분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추진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 정체 돌파를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쇄신론이 분출하는 등 당내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지지층을 먼저 결집해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내부 결집과 헌신의 모습도 없이 정치공학적 통합이 대선 초반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인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송영길 대표가 먼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고, 전날 회동에서 통합 추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통합을 위한 협상 대표로 우상호 의원을 선정했고, 열린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여는 등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이달 초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의 장·단점을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기조가 바뀐 것이다. 배경으로는 이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꼽힌다.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리는 모습이다. 여권 통합을 '지지율 열세를 만회할'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여권 내에서도 강경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중도 확장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등까지 고려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이 후보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60% 안팎으로, 당내에서는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절차가 본격화하면 당에서 물 밑 검토중이던 대사면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을 나중에 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중도층 확산이라는 방향과는 다른 면이 있지만, 확실하게 지지층을 잡아 진영 결집을 먼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정체의 여파로 터져 나온 선대위 쇄신론도 계속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 시간부로 선대위 너목들위원장직을 반납한다"며 "선대위에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서 시민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다. 절박함이 안 느껴진다"고 작심 비판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전날 지적에 대해 "현재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맞닥뜨린 첫 번째 큰 고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와 함께 선대위 내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대위가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컨트롤 타워 부재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굼뜬 모습이라는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선대위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구원등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전날 저녁 이 전 대표와 만나 선거 전략 등을 상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대위 내에서는 이같은 쇄신론이나 이해찬 역할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대장동 정국이나 부동산 민심 등 지지율 열세의 근본적인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해찬 전 대표 카드는 별다른 임팩트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되레 '도로 민주당'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전면 등판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위기에 빠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문제는 결집과 헌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전면에 나서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중진들은 물론 초재선 의원들이 모두 전국을 누비며 정권재창출을 호소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18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관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다자대결, 윤석열 36%·이재명 35%…1%P차 초접전

4개 기관 합동 여론조사
당 지지율도 3%P차로 줄어

다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로 차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의 4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발표된 직전 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인 7%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었던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로 뒤를 이었다.

내년 대선에서의 당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42%가 윤 후보를, 38%는 이 후보를 뽑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지지도)는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4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당 지지율 격차도 8%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6%를,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한 33%로 각각 집계됐다.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과 '국정 안정론' 간 격차도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41%로 집계돼 두 응답 간 격차는 6%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발표된 조사에서 두 응답 간 격차는 20%포인트였고,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13%포인트였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장동 특검 강력 요구할 것"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뉴스1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 저의 무고함을 밝혀주겠지 했더니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저에 대해 이상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며 "단 한 푼의 부정이나 한 톨의 먼지라도 있었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 기초단체장으로 살아남았겠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한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두고 대립하는 기획재정부를 겨냥해서는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수요 정상화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대대적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은 가동기한까지 그대로 쓰되, 수명이 다하기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제기되는 선대위 쇄신론에 대해서는 "몽골 기병대였다면 이미 나와서 진격하고 점령했을 텐데 로마 군단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며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속도를 더 내자고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지원금 추진에 나선 지 20일 만에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후보의 제안 이후 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범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계		93	29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 2022. 1. 10(월)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